

여수시, 관람객 의견 반영해 섬박람회 공연·체험 강화

낮부터 저녁까지 머무는 박람회로… 공연·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개막 이후 현장을 찾은 초기 관람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연과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며 오후 시간대 관람 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오후와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박람회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 여수 밤바다와 음악이 만나다...이번 주말부터 Weekly 콘서트 개최

조직위는 바다가 보이는 주행사장 열린무대를 중심으로 공연 콘텐츠를 강화한다.

오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음악과 함께 여수의 가을 정취를 음악과 함께 즐기는 'Weekly 콘서트'가 펼쳐진다. 해 질 무렵부터 이어지는 여

수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수들의 감미롭고 흥겨운 무대는 섬박람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공연일인 11일에는 MBN '무명전설'에서 톱3에 오른 장한별과 톱7의 정연호가, 12일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3의 김용빈, 천록담, 최재명이 무대에 섬박람회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연은 60분 동안 진행되며, 모든 공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박람회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Weekly 콘서트를 시작으로 버스킹과 문화공연 등 야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낮에는 전시와 체험을 즐기고, 저녁에는 여수 바다와 공연을 함께 즐기는 박람회로 관람 경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섬박람회'

조직위는 관람객이 직접 섬박람

회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주행사장 랜드마크인 주제섬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 이벤트, 일상과 추억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노을과 함께 낭만 '영화 관람'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여수시청 음악방송 '여수아이파크뮤직'과 연계한 보이는 라디오, 주행사장 전시관 곳곳에 숨겨진 여수시 소유 유물 등을 찾아 완성하는 '보물찾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준비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 인증 이벤트, 박람회장 핫스팟(5개) 포토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현장 경험이 SNS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오는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주행사장 열린무대에서 위클리콘서트가 개최된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추석 맞이 가로·보안등 일제 점검

순천시(시장 순훈모)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보안등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가로·보안등 3만834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귀성객 이동이 많은 주요 관문 도로, 전통시장 주변, 우범 지역, 농촌 마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점등 상태,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노후 부품 상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점검·정비를 완료하면 명절 기간 야간 통행 안전 확보, 범죄예방, 귀성객 맞이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시민 체감 효과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밤길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제조기업 AI 전환 지원… 참여기업 모집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광양 제조 산업 AI융합 실증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9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4개사로,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AI융합 기술 적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AI팩토리(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의 지역 연계 사업으로, 광양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서 현장 실태점검과 지원기업 선정, AI 기술 적용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제조 현장의 설비·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공정을 관리하는 디지털트윈 ▲

생산·설비·품질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MES(제조실행시스템)·IoT(사물인터넷)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SPC(통계적 공정관리) 및 AI 기반 품질관리 등 3개 분야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8일부터 21일까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에 신청하면 된다. 연구원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제조공정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10월 8일부터 기업별 제조 현장에 적합한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기업지원실(☎ 053-819-3153)로 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추진

곡성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곡성터미널,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옥과전통시장, 옥과농협하나로마트 등 명절 기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곡성군 안전건설과,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및 전기·가스·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시설별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에 성수품과 각종 물품의 적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고 및 적

치 공간의 화재 위험 요인, 노상 적치물 및 파란통로 확보 여부, 비상구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가스·소방·건축 4개로 나눠 실시했다. ▲전기 분야는 누전차단기·배선 및 접지 시설의 상태와 전기 시설의 노후·훼손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가스 분야는 가스 배관·밸브 및 가스레인지 등의 이상 유무와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했다. ▲소방 분야는 소화기 및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구·피난통로 확보 등 화재 예방 및 피난시설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건축 분야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손상·변형 및 누수 여부 등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으로 안전한 명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말규 기자

구례군 청년4-H, 제2회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에서 '금상' 수상

구례군 청년4-H 여성회원 4명이 지난 9월 9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열린 제2회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작업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3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관리기를 활용한 두둑 만들기과 멀칭 ▲반자동 정식 ▲수신호 활용 콤바인 상차 ▲트랙터+트레일러를 활용한 ㄷ자 코스 운전 등 총 4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실력을 겨뤘다.

군 청년4-H 회원들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담당자와 꾸준

히 연습하며 농기계 조작 능력을 키워왔다. 특히 농기계 운전뿐만 아니라 작업자 간 수신호와 호흡을 맞추는 등 농기계 운용 능력과 팀워크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고,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로 5개월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여성농업인이 농기계를 직접 능숙하게 다루며 농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구례군수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금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여성농업인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